

아카이브의 탈식민화: 기억 주권, 제도적 복원, 그리고 디지털 윤리

Decolonizing the Archive: Memory Sovereignty, Institutional Repair, and Digital Ethics

윤지수(Jisu Yoon)

E-mail: yoonjisu@korea.kr

화성특례시 문화예술과 학예연구사



논문접수 2026-04-07
최초심사 2026-04-22
게재확정 2026-05-27

ORCID

Jisu Yoon
<https://orcid.org/0000-0001-6101-616X>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초 록

본 논문은 탈식민적 실천을 통해 아카이브가 어떻게 정치적이고 윤리적인 공간으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다. Derrida의 아카이브 권력 개념과 Stoler의 식민 아카이브 분석에 기반하여, 기억 주권, 제도적 회복, 디지털 윤리라는 세 가지 핵심 차원을 중심으로 한 분석 틀을 제시한다. 이 분석 틀은 남아프리카 역사 아카이브(SAHA)와 Blackivists라는 두 사례에 적용된다. 분석 결과, SAHA는 공적 기록 체계에 대한 접근과 제도적 개입을 통해 주변화된 기억을 공적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반면, Blackivists는 공동체 기반 기록 생산과 디지털 윤리 실천을 통해 기억의 소유와 통제 문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접근 방식에는 차이가 있지만, 두 사례 모두 주변화된 역사를 복원하고 아카이브 권위를 재구성하려는 공통된 목표를 공유한다. 본 논문은 아카이브의 탈식민화가 단순한 제도 개혁을 넘어, 기억 주권, 윤리, 참여에 대한 근본적인 재사유를 요구하며, 한국의 기록관리 논의와 실천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reconfiguration of archives as political and ethical spaces through decolonial practices. Drawing on Derrida's concept of archival power and Stoler's analysis of the colonial archive, it develops an analytical framework structured around three key dimensions: memory sovereignty, institutional repair, and digital ethics. This framework is employed in the analysis of two case studies: the 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SAHA) and the Blackivists. The findings demonstrate that SAHA transforms marginalized memories into public records through strategic engagement with public record systems and institutional interventions, while the Blackivists address issues of memory ownership and control through community-driven record production and digital ethical practices. Despite differing strategies, both cases share the objective of restoring marginalized histories and reconfiguring archival authority. This article argues that decolonizing archives requires not only institutional reform but also a fundamental reconceptualization of memory sovereignty, ethics, and participatory practices, with broader implications for archival discourse and practice in Korea.

Keywords: 아카이브 탈식민화, 기억 주권, 제도적 회복, 디지털 윤리, 아카이브 권력
Decolonizing the archive, Memory sovereignty, Institutional repair, Digital ethics, Archival power

<https://jksarm.koar.kr>

www.kci.go.kr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아카이브는 기억과 역사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정치적이다. 프랑스 철학자 Jacques Derrida는 ‘시작’과 ‘명령’이라는 이중적 의미를 지니는 그리스어 *arkhe*를 통해 아카이브 개념을 발전시켰다(Derrida, 1996). Derrida에 따르면, 아카이브는 근본적인 법이 발생하는 장소이며, 물리적 공간을 소유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의미한다. 그는 특히 “기억에 대한 통제가 아니더라도, 아카이브에 대한 통제 없이는 정치·권력은 존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Derrida, 1996, 4). 다시 말해, 아카이브에 대한 통제는 기억에 대한 통제를 의미하며, 이는 궁극적으로 역사 서사의 통치로까지 확장된다.

그러나 Derrida의 관심은 아카이브 권력의 제한적 기능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그는 지배적 힘에 의해 기억이 왜곡되거나 지워지는 맥락에서도 저항이 지속된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그는 이를 ‘아카이비올리틱 충동(archiviolithic drive)’으로 개념화하며(Derrida, 1996, 11), 기억이 흔적의 형태로 회귀하여 가까운 미래에 다시 출현하려는 충동을 의미한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카이브는 더 이상 과거를 담은 중립적이거나 고전적인 저장소가 아닌, 침묵되거나 배제된 기억들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공간으로 이해된다.

Derrida의 통찰은 아카이브가 ‘무엇을 포함하는가’에서 ‘무엇이 포함될지를 누가 결정하는가’, 그리고 ‘누구의 권위 아래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가’로 초점을 전환함으로써 탈식민적 아카이브 이론에 비판적 기반을 제공한다(Derrida, 1996). 이러한 재구성은 아카이브 권력과 그것이 식민 역사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에 대한 보다 폭넓은 문제 제기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식민 아카이브에 관한 연구는 아카이브를 단순한 기록의 저장소가 아니라 권력관계와 식민 통치의 작동 방식을 드러내는 공간으로 이해해 왔다. 특히 Ann Laura Stoler는 식민 아카이브를 권력관계가 기록되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식민 통치가 작동하던 ‘통치의 기술(technologies of rule)’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toler, 2009, 21). 식민주의는 단순히 영토 정복에 그치지 않았으며, 사회가 집합적 기억, 지식, 정체성을 생산하고 조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Stoler, 2009). 아카이브 구조는 이러한 통제의 도구로 작동하며, 식민적 사고와 가치 체계를 내면화하고 정당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에 대응하여, 탈식민적 아카이브는 계승된 아카이브 시스템의 한계를 비판하고 식민적 틀에 저항하는 대안적 기억 실천을 모색해 왔다. 이는 주변화된 목소리와 기억을 복원하는 동시에, 수집·보존·접근 전반에 걸친 아카이브 실천의 윤리적·정치적 재구성을 요구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Hartman(2008)이 논의한 아카이브적 침묵과 주변화된 역사를 재현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과도 맞닿아 있다. 그러나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분류 체계에 대한 비판을 넘어, 기존 권력 구조가 어떻게 재구성되고 기억 자체가 어떻게 재형성되는지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연구의 분석 방향을 구체화한 뒤, 기억의 주권, 제도적 회복, 디지털 윤리라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을 바탕으로 분석 틀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을 보여주는 두 기관인 남아프리카 역사 아카이브(SAHA)와 Blackivists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실천이 기존 아카이브 권위를 어떻게 재구성하는지 고찰한다. 특히 기존 연구가 특정 유형의 아카이브 실천이나 개별 사례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제도적 아카이브와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를 비교함으로써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이 서로 다른 조건 속에서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살펴본다. 아울러 두 해외 사례의 비교를 통해 도출된 논의가 한국의 과거사 기록관리 맥락에서 어떠한 쟁점으로 연결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한다.

1.2 선행연구

아카이브를 사회적·정치적 맥락에서 분석한 연구는 다양한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축적되어 왔다. Bastian(2003)은 미국령 버진아일랜드 사례를 통해, 식민 통치 과정에서 생성된 기록이 본국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공동체로부터 분리되는 과정을 분석한다. 프랑스, 덴마크, 미국으로 이어지는 식민 지배 과정에서 축적된 기록들이 외부 아카이브로 이전되면서, 지역사회는 자신의 역사적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러한 기록의 이동은 공동체가 자신의 과거를 구성할 수 있는 기반 자체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또한 기록의 부재는 기억의 형성 방식 자체를 변화시켰다. 공동체는 기록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술과 단편적 기억을 중심으로 역사를 구성하게 되었으며, 기록의 ‘부재’ 자체가 집단 기억의 일부로 작용하였다. 이 사례는 기록의 부재와 기록의 권력이 동시에 작용하는 구조를 보여주며, 아카이브가 기억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드러낸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이후 탈식민적 맥락에서의 아카이브 및 기억 실천에 대한 연구로 확장된다. Rassool(2006)은 남아프리카 케이프타운의 District Six Museum 사례를 중심으로, 강제 이주와 공간의 파괴를 경험한 공동체가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이 박물관은 과거의 강제 철거와 공동체 해체의 경험을 기억과 문화적 표현을 통해 재구성하고, 이를 연대와 복원의 자원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보여준다. Rassool의 분석에서 중요한 점은 이러한 기억의 실천이 국가 주도가 아닌 지역 공동체와 시민사회 조직의 주도로 형성되었다는 점이다. District Six Museum은 토지 반환 운동, 증언 수집, 전시와 교육 활동을 통해 과거를 ‘복원’하는 동시에, 기억을 현재의 정치적 요구와 연결하는 장으로 기능한다. 또한 이러한 공동체 기반 기억 실천은 이후 남아프리카 전역의 다양한 지역에서 유사한 ‘community museum’ 형태로 확산되며, 제도 외부에서 형성되는 기억 생산의 중요한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연구는 공동체 기반 기억 실천의 형성과 확산 과정에 주로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실천이 기존 제도적 아카이브와 어떠한 관계를 맺으며 상호 작용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은 제한적으로 다루고 있다. 특히 제도적 기록 체계와 공동체 기반 아카이빙이 어떻게 긴장하거나 교차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추가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한편, 디지털 환경에서의 아카이브 실천을 다룬 연구들은 기록의 생산과 접근이 기술적 조건뿐 아니라 사회적·문화적 맥락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Christen(2012)은 호주 원주민 공동체와 함께 구축한 Mukurtu 디지털 아카이브 사례를 통해, 기록의 저장과 공유가 단순한 데이터 관리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화적 규범과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분석한다. 이 시스템에서는 이용자의 성별, 연령, 공동체 내 위치 등에 따라 접근 가능한 자료가 달라지며, 특정 의례나 사망자 이미지와 같은 콘텐츠는 엄격한 문화적 규칙에 따라 통제된다. 이러한 사례는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접근’이 보편적 권리가 아니라, 공동체가 설정한 윤리적·문화적 프로토콜에 의해 조정되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또한 Christen은 “정보는 자유로워야 한다”는 일반화된 개방 담론이 토착 공동체의 역사적 배제와 문화적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공유 역시 다양한 사회적 조건과 권력 관계 속에서 재구성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디지털 아카이브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식이 공유될 것인지를 둘러싼 윤리적·정치적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Owens(2018)은 디지털 보존을 단일한 기술적 해결책으로 환원할 수 없으며, 장기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제도, 자원, 그리고 지속적인 실천의 결합임을 강조한다. 특히 디지털 아카이브는 특정 도구나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관의 재정, 인력, 정책과 같은 사회적 조건에 의해 유지되며, 무엇을 보존하고 어떻게 접근하게 할 것인지는 선택과 판단의 결과로 형성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디지털 아카이브가 단순한 기술적 인프라가 아니라, 접근, 통제, 그리고 보존의 방식이 사회적·윤리적 조건 속에서 구성되는 실천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연구들은 각각 공동체의 문화적 규범 또는 제도적·기술적 조건에 초점을 두고 있어, 디지털 아카이브에서 작동하는 권력, 윤리, 제도적 구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거나, 제도적 아카이브와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간의 관계를 비교하는 데에는 한계를 가진다.

한편, 국내 기록관리학에서는 과거사 기록, 국가폭력 기록, 식민지 기록을 둘러싼 아카이브와 기억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 이들 연구는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사건을 기록관리의 관점에서 다루며, 사회적 기억의 형성, 피해자 증언의 기록화, 기록 접근권과 참여의 문제를 주요 쟁점으로 제기해왔다.

우지원과 이영학(2011)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을 대상으로 기록정보콘텐츠 구축 방안을 제시하며, 일제강점기 및 국가폭력 관련 기록이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재구성과 활용을 통해 사회적 기억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과거사 기록이 국가 주도의 조사와 정리 과정을 통해 생산된 이후, 어떻게 재구성되고 접근될 것인가의 문제를 제기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윤은하와 김유승(2016)은 노근리 사건을 사례로, 기록이 사회적 기억을 담지하고 변화하는 과정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록의 형태와 생산 주체가 변화함을 보여주며, 기억과 기록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사회적·정치적 맥락 속에서 지속적으로 재구성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국가의 공식 기록뿐 아니라 구술, 시민 참여, 문화적 기록 등 다양한 형태의 기록이 기억 형성에 관여한다는 점은 아카이브 실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경래(2015)는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존의 국가 중심 기록 체계가 피해자의 기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아카이브 정의’의 관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기록의 생산과 관리 과정에서 피해 당사자의 참여와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아카이브를 권력과 정의의 문제로 재해석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들 국내 연구는, 과거사 기록이 단순한 보존 대상이 아니라, 피해자의 경험을 사회적으로 재구성하고 역사적 책임을 논의하게 하는 기록관리의 대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기존 국내 연구는 주로 한국 과거사 기록의 생산·관리·활용, 특정 사건을 둘러싼 사회적 기억의 형성, 피해자 중심의 아카이브 모델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해 왔다. 이로 인해 제도적 아카이브와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라는 서로 다른 실천 조건 속에서 기록 권한, 제도적 책임, 공동체 참여의 문제가 어떻게 다르게 구성되는지를 비교 분석하는 논의는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카이브를 둘러싼 기억, 권력, 공동체, 디지털 윤리의 문제는 다양한 지역과 사례를 통해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가 제도적 아카이브와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달리 구현되는지에 대한 비교 분석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SAHA와 Blackivists라는 두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의 구체적 양상을 비교하고, 그 분석이 한국 과거사 기록관리 논의에 제기하는 쟁점을 함께 검토한다.

1.3 분석대상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문헌과 디지털 아카이브 자료를 바탕으로 SAHA와 Blackivists의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을 비교·분석하는 질적 사례연구이다. 분석 대상으로는 남아프리카 역사 아카이브(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SAHA)와 미국 시카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Blackivists를 선정하였다.

두 사례는 서로 다른 지역적·제도적 조건에서 형성되었지만, 지배적 기록 체계에서 충분히 재현되지 못한 기억을 다루고, 기록의 접근·해석·보존 권한을 재구성하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 SAHA는 반아파르트헤이트 및 인권 기록을 중심으로, 아카이브 실천과 정보접근권의 활용을 통해 과거와 현재의 정의를 위한 투쟁을 기록해 온 독립 인권 아카이브이다. Blackivists는 흑인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전문적인 아카이브 지식과 보존 실천을 제공하는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집단이다. 따라서 두 사례는 배제된 기억의 기록화, 기록 권한의 재구성, 아카이브 실천의 윤리적 책임이라는 공통 문제를 공유하면서도, 각각 제도적 개입과 공동체 기반 실천에 무게를 두며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을 전개한다. 또한 두 기관은 탈식민적 아카이브 논의의 서로 다른 쟁점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의미가 있다. SAHA는 남아공 디지털 아카이브 연구에서 정보접근권과 사회정의의 결합을 보여주는 사례로 논의되며, Blackivists는 미국 아카이브 담론에서 회복적 아카이브 실천을 모델화하는

사례로 소개된다. 따라서 두 사례의 비교는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이 서로 다른 제도적·공동체적 조건 속에서 어떻게 조직되고 의미화되는지를 검토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공통성과 차이는 두 사례를 동일한 분석 관점에서 비교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본 연구는 두 사례를 통해 1) 주변화된 기억의 소유와 접근의 재구성, 2) 아카이브 권력 구조에 대한 회복적 개입, 3)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의 생산·보존·공유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를 분석한다. 즉, 기억 주권, 제도적 회복, 공동체 주도의 디지털 윤리라는 분석 관점은 두 사례의 공통된 문제의식을 포착하는 동시에, 각 사례가 그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료 수집은 각 기관의 공식 웹사이트, 온라인 아카이브, 카탈로그, 프로젝트 설명 자료, 관련 보고서 및 학술 문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자료들은 각 기관의 설립 목적과 활동 원칙, 주요 프로젝트의 구성, 기록 접근 방식, 공동체와의 관계 설정, 그리고 아카이브 실천이 공적으로 설명되는 방식을 파악하기 위해 활용되었다.

세부적으로, 자료 분석은 후속 장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분석 관점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각 사례에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주요 실천을 정리한 뒤, 이를 기억 주권, 제도적 회복, 공동체 주도의 디지털 윤리의 관점에 따라 분류하고, 각 관점이 사례별로 어떠한 방식과 강도로 나타나는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두 사례에서 동일한 분석 범주가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를 비교하여, 아카이브 권력, 접근, 윤리, 참여의 측면에서 각각의 의미를 해석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공개적으로 접근가능한 문헌과 온라인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각 기관 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참여자들의 경험 전체를 포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일부 기록관리 절차, 비공개 의사결정 과정, 공동체 구성원의 구체적 경험을 직접 확인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의 관심은 기관 내부 운영의 전모를 재구성하는 데 있기보다, 각 기관이 공개적으로 제시한 자료를 통해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이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되고 조직되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식 웹사이트, 온라인 아카이브, 프로젝트 설명 자료, 관련 학술 논의에 나타난 기관의 실천 방식과 자기서술을 중심으로 두 사례를 비교·분석한다.

2. 이론적 배경 및 분석: 기억, 권력, 윤리를 중심으로

아카이브를 탈식민화한다는 것은 그것을 단순한 문서의 저장소가 아니라 기억, 권력, 윤리가 교차하는 정치적 공간으로 재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Derrida, 1996; Stoler, 2009). 이에 따라, 본 절은 세 가지 핵심 개념 축을 중심으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첫 번째 분석 틀은 ‘기억의 주권(memory ownership)’이다. 이는 ‘기억이 아카이브를 통해 어떻게 재현되고 유통되는지’, ‘그것을 규정하는 권력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정치적 문제를 제기한다. 이러한 논의는 아카이브가 어떤 경험을 기록하고 어떤 경험을 침묵시키는지 조직하는 제도적 구조와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Stoler, 2009). 따라서 기억의 주권은 단순한 기록 보존을 넘어, 역사 서사가 형성되고 해석되는 사회적 조건과 관련된 정치적 문제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누가 기억을 기록하고 해석할 권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수행되는지에 초점을 맞추며, 공동체가 자신의 서사에 대한 통제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또한, 이는 기억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드러내는 ‘기억의 정치(memory politics)’와도 연결된다. 특히 식민 경험을 지닌 사회에서는 기억이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역사적 억압과 침묵을 드러내는 중요한 정치적 자원이 된다. 이러한 관점은 아카이브를 중립적인 보존의 공간으로 보는 대신, 공유된 권위와 문화적 실천에 기반한 참여적 모델로 재구성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아카이브는 공유된 기억 자원으로 기능하며, 공공적 공유재의 한 형태로 작동한다.

Mary Stevens와 Andrew Flinn은 공동체가 생성한 기록의 소유권과 해석 권한이 주류 기관으로 완전히 이전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공동체가 이에 대한 지속적인 통제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공동체와 아카이브 기관 간의 파트너십 모델을 제안하면서, 보존과 접근이 공동으로 관리되는 ‘스튜어드십(stewardship)’의 형태가 공동체 기억을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한다(Stevens et al., 2010). 또한 Ricoeur(2004)는 『Memory, History, Forgetting』에서 기억을 타인의 고통과 침묵을 드러내는 윤리적 행위로 규정하며, 기억의 해석과 보존이 국가 기관만의 영역이 되어서는 안 되며, 해당 기억이 속한 공동체가 반드시 참여해야 함을 강조한다.

두 번째 분석 틀은 ‘제도적 회복(institutional repair)’이다. 이는 기존 아카이브 시스템이 어떻게 권력의 불균형을 내면화하고 재생산하는지를 다룬다. 이러한 개념은 구조적 배제에 의해 형성된 시스템에 대한 개입으로서의 비판적 실천을 반영한다. Michel-Rolph Trouillot은 역사 생산 과정에서 권력이 특정 사건과 경험을 어떻게 침묵시키는지를 분석하며, 이러한 침묵이 기록의 생성과 해석을 포함한 역사 생산의 여러 단계에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Trouillot, 1995, 26). Carter(2006) 역시 아카이브가 단순히 기록을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선택과 배제의 과정을 통해 특정 경험을 주변화하거나 보이지 않게 만드는 ‘아카이브적 침묵(archival silence)’을 생산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Harris(2002)는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남아프리카의 국가 소속 아카이브 기관들이 침묵을 제도화하고 국가 권력을 강화하는 도구로 기능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그는 의미있는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로부터 발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arris, 2002).

이론적으로 볼 때, 회복은 단순한 기술적 복원이나 정책 조정을 넘어서는 것으로,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어 온 제도적 비대칭성에 대한 구조적 대응으로 기능한다. 탈식민적 맥락에서 ‘회복’은 역사적 폭력의 잔존 효과를 드러내고, 그 이후의 새로운 아카이브와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마지막 분석 틀은 ‘디지털 윤리(Digital Ethics)’이다. 이 개념은 디지털 기술이 단순히 중립적인 저장 도구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권력 구조를 재생산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이해에서 출발한다(Noble, 2019). 디지털 아카이브는 기록을 저장하는 기술적 인프라이면서도 메타데이터의 생성, 분류 체계, 검색 가능성, 접근 권한의 구성과 같은 요소를 통해 어떤 기억이 가시화되고 어떤 기억이 주변화되는지를 결정하는 구조를 형성한다(Sherratt, 2019).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에서는 디지털 인프라의 비중립성을 지적하며, 디지털 아카이브가 민주적 참여를 확대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위계와 배제를 강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Noble, 2019; Sherratt, 2019). Caswell(2014) 또한 아카이브 작업에서 윤리적 책임성과 공동체에 대한 책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아카이브를 단순한 수집과 보존의 공간이 아니라 공동체가 자신의 조건에 따라 기억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장소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동체 기반 디지털 아카이브는 공동체의 변화하는 요구에 대응하여 보존, 기술, 디지털 큐레이션을 수행하는 관계적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Brouwer와 Mulder(2003)가 주장하듯, 아카이브는 과거의 저장소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문화적 기억을 능동적으로 형성하는 열망의 장소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디지털 기록의 관리는 공동체와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수행되는 윤리적 책임의 문제로 제기된다. 이러한 관점은 디지털 도구를 단순한 기록 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회복하고 집합적 기억을 재구성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실천에서 드러난다.

3. 사례연구

본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연구방법 및 이론에 따라 SAHA와 Blackivists의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을 검토한다. 먼저 SAHA의 주요 기록 실천을 살펴보고, 이어 Blackivists의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실천을 분석한다. 각 사례는 기억 주권, 제도적 회복, 공동체 주도의 디지털 윤리라는 분석 관점을 중심으로 검토된다.

3.1 SAHA의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

1980년대 반아파르트헤이트 활동가들에 의해 설립된 SAHA는 국가 주도의 아카이브 시스템에 비판적으로 개입해 온 독립적인 인권 아카이브이다. 법적 개입, 구술사 프로젝트, 교육 이니셔티브, 그리고 인권 옹호 활동을 통해 SAHA는 기억의 복원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한다(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2025). SAHA의 실천은 국가 중심의 기록 체계에서 배제되어 온 기억을 공적 기록의 영역으로 위치시키는 동시에, 기록 접근과 아카이브 운영의 제도적 조건을 재구성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3.1.1 기억 주권: 주변화된 증언의 공적 기록화

기억 주권은 아카이브에서 누가 기억을 생산하고, 소유하며, 접근하고 해석할 권한을 갖는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에서 기억 주권은 국가나 제도에 의해 독점되어 온 기록의 권위를 해체하고, 주변화된 주체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사적 기억을 공적 기록의 영역 안에서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SAHA의 기억 주권은 공식 아카이브에서 배제되어 온 증언을 수집하고 공적 기록으로 재구성하는 구술사 프로젝트에서 두드러진다. SAHA는 오랫동안 공식 아카이브에서 배제되어 온 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인들의 증언을 수집해 왔으며, 이를 통해 역사적 재현에서의 구조적 불평등을 다루고 ‘아래로부터 쓰인 역사’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기관이 유지하고 있는 구술사 컬렉션은 역사학자, 작가, 활동가들과의 다양한 인터뷰를 포함하고 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 중 하나는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기록된 260명 이상의 반아파르트헤이트 인물들의 증언이다(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n.d.).

SAHA가 소장하고 있는 Julie Frederikse 컬렉션(AL2460)은 반아파르트헤이트 인물들의 증언을 포함하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구술사 실천의 성격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준다(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n.d.). 이 컬렉션은 197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수행된 인터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저널리스트이자 연구자로 활동한 Frederikse가 반아파르트헤이트 투쟁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생산한 자료들이다. 해당 인터뷰들은 단순한 사후 회고를 넘어 정치적 격변의 시기 속에서 동시대적으로 생산된 기록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인터뷰는 오디오, 전사본, 신문 클리핑, 개인 노트 등 다양한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개별 증언이 서로 다른 자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확장된 기억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는 구술사가 특정한 역사적 서사를 구성하는 과정임을 시사한다. 따라서 이 컬렉션은 개인 연구자와 활동가의 기록이 공적 아카이브 안에서 재배치되는 과정을 보여주며, 기억의 생산과 해석 권한이 국가 중심의 기록 체계 바깥에서도 형성될 수 있음을 드러낸다.

기억 생산의 주체성은 1981 Detainees Oral History Project(AL2933)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이 프로젝트는 1981년 구금되었던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약 20여 년이 지난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 인터뷰가 수행되었다. 인터뷰에는 장기 구금, 재판, 그리고 구금 중 사망과 같은 경험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국가 기록에서 충분히 드러나지 않았던 폭력의 양상을 가시화한다. 특히 이 프로젝트는 기관이 아닌 당사자들이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참여했다는 점에서, 기억의 생산 과정에서 주체성이 어떻게 재구성되는지를 보여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선정되었으며, 그들의 증언은 집합적 투쟁의 기억으로 확장된다. 나아가 일부 기록의 미완성 상태나 전사 과정에서의 오류는 아카이브가 완전한 재현을 제공하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내며, 동시에 기억의 단절과 불완전성을 내포한 기록으로서의 특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이 프로젝트는 피해 경험의 당사자들이 단순한 기록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을 보존하고 해석하는 주체로 등장한다는 점에서 기억 주권의 핵심적 의미를 보여준다(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2011).

나아가, SAHA의 ‘Forgotten Voices of the Present’ 컬렉션(AL3280)은 기억 주권의 문제를 탈아파르트헤이트 이후의 사회적 현실로 확장된다. 2006년부터 2009년 사이에 수행된 이 프로젝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세 개 빈곤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여, 민주화 이후의 사회·경제적 현실을 살아가는 주민들의 경험을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젝트는 특히 기존 역사 서술에서 배제되어 온 집단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대안적 역사(alternative history)’를 구성하려는 시도를 명시적으로 드러낸다. 수집된 구술 자료는 농촌, 도시, 준도시 지역을 포괄하는 다양한 생활 세계를 반영하며, 정치적 사건 중심의 역사 서술을 넘어 일상적 경험을 역사화하는 데 기여한다. 또한 오디오 인터뷰뿐 아니라 영상 기록, 전사본, 동의서 등 다양한 매체를 포함하고 있어, 기억이 단일한 텍스트가 아니라 다층적인 형식으로 구성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특징은 탈식민 이후에도 여전히 지속되는 사회적 불평등과 주변화를 드러내며, 구술사가 현재의 경험을 통해 역사 서사를 재구성하는 중요한 방식임을 시사한다. 이는 기억 주권이 과거의 억압 경험을 복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민주화 이후에도 지속되는 사회적 주변화와 불평등을 현재의 목소리로 기록하는 과정 속에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2009).

앞서 살펴본 사례들과 같이 서사는 종종 개인의 회상으로 시작되지만, 인터뷰의 진행 과정에서 윤리적 복원의 행위로 발전하며 공유된 기억의 형성에 기여한다. 인터뷰 과정 동안 참여자들은 자신의 경험을 서술하고 해석하는 데 있어 능동적인 행위자로 참여하며, 이를 통해 문서 중심의 기록에서 종종 부재해 왔던 사회적 경험을 가시화한다. SAHA의 구술사 프로젝트는 인터뷰의 수집, 기록화, 보존을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증언을 공적 기록의 영역에 포함시킨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적인 기억들은 다른 증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재맥락화되며, 다양한 경험이 축적됨에 따라 공동체 내 집합적 기억의 형성을 위한 기반이 형성된다(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2009; 2011; n.d.).

이와 같은 맥락에서 SAHA가 수집한 자료들은 단순히 보존된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주변화된 목소리를 역사적 아카이브 속으로 다시 위치시키는 정치적 도구로 기능한다. Verne Harris는 아카이브를 “복합적이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권력의 장”이자 “의미를 둘러싼 전장”으로 규정하며, “타자성에 대한 환대(hospitality towards otherness)”라는 원칙을 제시한다(Harris, 2002, 85-86). 그는 아카이브가 다양한 형태의 타자성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주변화되고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점에 따라 SAHA의 구술사 작업은 기관을 ‘기억의 해석자’로 위치시키며, 역사적으로 침묵되어 온 이들에게 해석의 주체성을 회복시키는 탈식민적 실천을 수행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SAHA는 기억이 집합적으로 생산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서의 아카이브를 적극적으로 재구성하고 있다. 따라서 SAHA의 구술사 실천은 기억을 단순히 보존하는 것을 넘어, 주변화된 주체들이 자신의 경험을 공적 기록의 일부로 위치시키고 해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억 주권의 회복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3.1.2 제도적 회복: 법적 개입과 아카이브 권력 구조의 재구성

제도적 회복의 관점에서 SAHA의 활동은 ‘회복(repair)’이라는 이론적 개념이 법적 개입, 기록 접근, 교육 실천, 그리고 아카이브 운영의 재구성을 통해 어떻게 구체화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SAHA의 실천은 기억과 권력의 정치적 차원을 비판적으로 탐구한 Achille Mbembe의 이론적 작업과 공명한다. Mbembe는 아카이브를 의례화된 실천이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삶의 파편들이 매장되는 “사원과 묘지(temple and cemetery)”로 규정한다(Mbembe, 2002, 19). 그의 관점은 아카이브 권위의 근원이 기록의 텍스트 내용이 아니라, 공간적 배치, 접근 규정, 무엇이 포함되고 무엇이 배제되는지를 규율하는 시스템과 같은 아카이브의 구조적 방식에 있음을 강조한다(Mbembe, 2002, 20). 이러한 관점에서 아카이브는 역사에 대한 중립적 저장소가 아니라, 선택과 배제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억이 능동적으로 형성되는 공간으로 드러난다(Mbembe, 2002, 21). 이러한 관점에서, SAHA의 제도적 회복 시도는 아카이브의 ‘제도화하는 상상력(instituting imaginary)’을 재구성하려는 시도로

이해될 수 있다(Mbembe, 2002, 19). 이는 곧 사회가 스스로를 기억하고 상상하는 방식을 재형성하려는 것이다. SAHA는 수동적인 기록 저장소가 아닌, 기록의 수집, 접근, 해석 방식을 재조직하는 제도적 개입의 공간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탈식민적 관점에서의 ‘회복’은 상실된 것을 복원하는 문제를 넘어 아카이브의 권력 구조를 드러내고 이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전략적 실천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SAHA는 식민적 아카이브 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해 왔다. 가장 중요한 노력 중 하나는 남아프리카에서 정보 접근에 대한 헌법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제정된 정보 접근촉진법(PAIA, 2000년 제2호 법률)을 전략적으로 활용한 것이다(Republic of South Africa, 2000, Act No. 2 of 2000). SAHA는 PAIA를 통해 아파르트헤이트 시기 인권 침해와 관련된 이전까지 은폐되어 왔던 기록에 대한 공공의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PAIA는 시민사회 단체와 연구자들이 국가 기관이 보유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 법에 따라 개인이나 조직은 특정 기록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일정 기간 내에 정보공개 여부와 그 결정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SAHA는 이러한 절차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국가 기관에 반복적으로 정보 공개를 요청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기록함으로써 공공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경로를 구축하였다. 이 시스템은 정보 요청, 기관의 응답, 그리고 공개 거부 사유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한다(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2025).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기술적 범위를 넘어, 기존 아카이브 시스템 내에서 특정 기록들이 주변화되어 온 문제를 다루기 위한 보다 넓은 노력의 일환으로 작동한다. 아카이브는 오랫동안 식민 통치의 도구로 기능해 왔으며, 아프리카 사회를 타자화해 온 서구 중심의 인식론적 틀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SAHA의 아카이브 복원 및 재맥락화 시도는 이러한 배제의 구조를 교란하는 정치적 개입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지배적인 권력 체제에 도전하는 방식으로 아카이브의 제도적 권위와 기록 접근의 조건을 재구성할 가능성을 열어준다. SAHA의 실천은 기록 접근을 법적·공적 권리의 문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통해 제도적 회복의 핵심적인 차원을 실현한다.

SAHA의 제도적 회복은 아카이브 자료를 교육과 공공 담론의 제도적 장 안으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SAHA는 수집한 자료를 주제별 교육 콘텐츠로 재구성하고 이를 학계, 학교, 지역사회 환경 전반에 걸쳐 배포함으로써, 그 활동을 인권 옹호의 영역으로 확장한다. SAHA의 교육 프로그램은 단순히 아카이브 자료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습자들이 스스로 역사 자료를 해석하고 지식 생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예를 들어, SAHA in the Classroom 시리즈는 아카이브 컬렉션에서 가져온 1차 자료를 활용하여 학생들이 현대 남아프리카 역사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설계된 교육 자료로 구성되며, 교사용 안내서와 함께 교실 환경에서 활용되도록 개발되었다. 이러한 자료는 학생들이 다양한 역사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고 해석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교사들에게는 사료 기반 접근을 역사 교육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한다. 또한 이 시리즈는 기존 교과서에서 제한적으로 다루어졌던 다양한 1차 자료를 학습자들에게 제공한다. 각 자료집은 역사적 주제별 배경 설명, 1차 사료, 분석 질문, 교사용 안내서를 포함하며, 학습자들이 사료의 편향성, 신뢰성, 유용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는 학습자들이 역사적 자료를 해석하고 평가하는 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나아가 이 자료는 국가시험의 질문 형식을 반영하여 설계됨으로써, 아카이브 자료가 교실 밖의 보존된 기록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교육과정과 평가 체계 속으로 통합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는 아카이브를 지식 전달의 수단이 아니라, 비판적 사고와 해석 능력을 형성하는 교육적 도구로 전환하는 중요한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적 개입은 Meeting History Face-to-Face 프로젝트에서 학교 기반 학습을 지역사회 기록 실천과 연결하는 방식으로 확장된다. 이 프로젝트는 교사와 학생들이 지역사회 구성원과 인터뷰를 수행하고 구술사를 수집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지역의 기억을 교육 과정 안에서 탐구하도록 설계되었다. 학습자들은 지역사회에 존재

하는 다양한 과거의 이야기와 기억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가족 구성원이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수행하며, 질문 구성, 기록, 전사와 같은 구술사 방법을 경험한다. 또한 수집된 자료를 포트폴리오 형태로 정리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구술 자료의 수집과 해석, 재구성을 학습자 스스로 수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Meeting History Face-to-Face 프로젝트는 학습자들이 아카이브 자료를 단순히 소비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의 기억을 수집하고 해석하는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아카이브를 참여적이고 실천적인 학습의 장으로 확장한다.

마지막으로 Voices from Our Past와 같은 프로젝트는 아카이브에 보존된 증언과 역사적 음성 자료를 결합하여 민주화 투쟁과 관련된 다양한 개인적 경험을 재구성하는 교육 자료를 생산한다(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2025). 이 프로그램은 라디오 다큐멘터리 형식의 음성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들이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양한 목소리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다. 학습자들은 음성 기록을 청취한 뒤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사료 기반 질문에 답하며, 토론과 논의를 통해 역사적 해석을 형성한다. 각 자료는 특정 사건이나 인물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관련 아카이브 자료 및 공공 기념물과 연결되어 있어 학습자들이 역사적 기억의 구성과 재현 방식을 탐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교사들은 제공된 질문을 활용해 토론이나 논쟁을 유도하고, 학습자들이 역사적 사건의 의미와 해석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이러한 구성은 아카이브에 보존된 기록이 과거의 자료에 머무르지 않고, 현재의 교육 맥락 속에서 재해석되고 재구성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이처럼 SAHA의 제도적 회복은 은폐되거나 접근이 제한되었던 기록을 공개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록이 법적 권리, 시민 교육, 공공 담론의 장에서 다시 작동하도록 만드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PAIA 활용이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을 시민적 권리와 제도적 책임의 문제로 전환한다면, SAHA의 교육 프로그램은 아카이브 자료를 학습자와 시민이 해석하고 토론할 수 있는 공적 자원으로 재배치한다. 따라서 SAHA의 실천은 아카이브 권력 구조를 외부에서 비판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기록 접근과 역사 해석의 제도적 조건 자체를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회복의 사례로 볼 수 있다.

3.1.3 디지털 윤리: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한 접근성과 공공성의 확장

SAHA의 디지털 실천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감시나 플랫폼 위협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보다는, 기록 접근권, 시민의 권리, 교육적 활용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즉, SAHA의 디지털 윤리는 디지털 기술 자체에 대한 적극적인 비판이나 저항의 형식이라기보다, 아카이브 자료를 더 넓은 공중에게 개방하고 사회정의와 인권 옹호의 맥락에서 활용가능하게 만드는 실천으로 이해할 수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디지털 아카이브 실천은 단순한 보존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접근, 소유, 저작권, 상업적 플랫폼, 그리고 지식의 대표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디지털화는 기록을 더 넓은 공중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지만, 동시에 디지털 자료의 소유권과 관리 권한이 특정 기관이나 상업 플랫폼에 집중될 위험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점에서 디지털 아카이브는 단순히 자료를 온라인에 제공하는 행위가 아니라, 누가 자료를 통제하고, 누가 접근할 수 있으며, 어떤 방식으로 지식이 분류되고 대표되는지를 둘러싼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SAHA의 디지털 실천은 정보 접근권과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이해될 수 있다. Jethro는 SAHA가 규모는 작지만 점차 확장되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정보 접근권과 시민권을 옹호하고, 아카이브가 현대 남아프리카 사회에서 갖는 시민적 가치를 부각시켜 왔다고 설명한다(Jethro, 2023). SAHA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정보공개 요청 자료, 인권 기록, 교육 자료, 온라인 전시 및 디지털 컬렉션 등을 통해 공공 기록에 대한 접근을 확대하는 디지털 기반의 아카이브 실천으로 기능한다. 따라서 SAHA의 디지털 아카이브는 국가 정보에 대한 접근, 사회정의, 그리고 시민적 권리의 실현을 매개하는 공적 인프라로 이해될 수 있다.

또한, SAHA는 Sunday Times Heritage Project와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 아카이브의 교육적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 Sunday Times Heritage Project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주요 신문인 Sunday Times의 창간 100주년을 계기로

추진된 공공 역사 프로젝트로, 남아공의 주요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을 기념하고 이를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획되었다(Sunday Times Heritage Project, n.d.). 이 프로젝트는 신문 기록과 관련된 역사 자료, 인터뷰, 시청각 및 사진 자료 등을 온라인에서 제공하는 교육 웹사이트로 개발되었으며, 고등학생을 위한 상호작용적이고 시각적인 학습 자료로 설계되었다. 이 사례는 SAHA의 디지털 윤리가 공공 교육과 시민적 기억의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함을 보여준다. 다만 SAHA의 실천은 Blackivists처럼 디지털 감시, 메타데이터 보호, 플랫폼 위험, 데이터 주권을 전면적인 실천 원리로 제시하기보다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정보 접근권과 공공성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러한 점에서 SAHA의 디지털 윤리는 접근 중심의 디지털 윤리로 이해할 수 있으며, 이는 기록의 개방과 교육적 활용을 통해 시민들이 과거의 인권 침해와 사회정의의 문제에 접근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3.2 Blackivists의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

Blackivists는 미국 시카고 전역의 다양한 기관과 공동체에서 모인 흑인 아키비스트들의 집단이다(Blackivists, 2025a). 이들은 소셜 미디어, 온라인 플랫폼, 그리고 공동체 기반의 디지털 기록화를 통해 아카이브 실천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제도적 아카이브의 경계를 넘어 기억의 생산과 유통을 가능하게 한다. 그들의 실천은 전통적 아카이브의 배제적 구조에 저항하고, 흑인 공동체의 역사와 문화를 재전유하는 데 중심을 둔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Blackivists의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을 공동체 기록의 소유와 통제, 추출적 아카이브 구조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실천, 그리고 디지털 환경에서의 감시·동의·데이터 보호를 둘러싼 공동체 기반 대응이라는 세 차원에서 분석한다.

3.2.1 기억 주권: 공동체 기록의 소유와 통제

Blackivists의 기억 주권은 공동체가 자신의 기록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며 해석할 권한을 회복하는 방식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기억 주권은 단순히 주변화된 기억을 기록하는 문제를 넘어, 누가 자료를 보관하고, 어떤 조건에서 공유하며, 그 의미를 누가 정의할 것인가를 공동체 내부에서 결정하는 실천과 관련된다.

이러한 기억 주권의 실천은 Blackivists와 Sixty Inches From Center가 공동으로 개발한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프로젝트인 Diamond in the Back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프로젝트는 공동체 주도의 방법을 통해 시카고 흑인 공동체의 문화적·물질적 기억을 발굴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유산을 추출하는 방식이 아닌, 역사 기록의 공백을 메우고 종종 기록되지 못했던 사람들, 장소, 사건들의 가시성을 높이려 기획되었다. 이는 역사적으로 외부자의 시선에서 기억을 해석하고 수집해 온 제도적 아카이브 틀에 대한 비판으로 작동하며, 대신 기억의 소유권을 공동체로 되돌린다. 또한, 비추출적 모델을 통해 시카고랜드 지역의 개인과 조직이 유형 및 무형 자료를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Blackivists, 2025a).

이러한 아카이브 실천은 시카고 흑인 공동체 내부에 이미 존재하지만 제도적 아카이브에서는 충분히 기록되지 않았던 문화적·물질적 자료를 발굴하고 확장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Diamond in the Back은 기존 아카이브가 주변화된 집단의 경험을 과소평가하거나 왜곡해 온 문제를 전제로, 개인, 가족, 지역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와 기억을 중심으로 역사 기록을 재구성한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는 ‘비추출적(post-custodial)’ 접근 방식을 채택하여, 자료를 외부 기관으로 이전하거나 수집하는 대신 공동체 내부에서 보존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여자로 선정된 지역 주민과 단체는 재정적 지원과 함께 아카이브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과 기술적 자문을 제공받으며, 자신의 컬렉션을 스스로 정리하고 보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 또한 Blackivists는 공공 교육 프로그램과 워크숍, 그리고 공동체 기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개별적인 기억과 컬렉션이 상호 연결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이러한 과정은 공동체 구성원들이 자신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외부의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정의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며, 아카이브 실천을 공동체 내부의 지속적인 관계와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으로 재구성한다.

이처럼 Diamond in the Back은 Blackivists의 기억 주권이 단순한 자료 보존이 아니라 기록 권한의 재배치와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 프로젝트에서 공동체 구성원은 어떤 자료를 보존할 것인지, 이를 어떤 조건에서 공유할 것인지, 그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관여하는 주체로 위치한다. 특히 비추출적 접근은 자료를 외부 기관으로 이전하는 대신 공동체 내부의 보존 역량과 해석 권한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Diamond in the Back은 공동체의 기억을 제도적 아카이브가 대신 수집·정의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체가 자신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의미화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Blackivists의 기억 주권을 구체화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

3.2.2 제도적 회복: 추출적 아카이브 구조에 대한 비판과 대안적 실천

Blackivists의 제도적 회복은 기존 아카이브와 역사학 분야의 전문 권위, 추출적 수집 관행, 그리고 배제적 기록 구조를 비판하고 대안적 실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이들에게 제도적 회복은 아카이브 기관을 단순히 개선하는 문제가 아니라, 기록을 둘러싼 권력 관계와 지식 생산 방식을 재구성하는 과정에 가깝다.

이는 Blackivists와 역사학자 Ashley D. Farmer 간의 협력 프로젝트인 ‘Toward an Archival Reckoning’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이 프로젝트는 세 가지 상호 연결된 구성 요소인 ‘공동체 대화’, ‘Black 페미니스트 퍼포먼스 그룹 Honey Pot Performance(HPP)와의 협업’, 그리고 ‘제도적 변화를 위한 행동 지향적 요구’로 이루어져 있다 (Blackivists, 2025c). 이 세 구성 요소는 각각 아카이브 실천의 서로 다른 층위를 구체적으로 드러낸다. 먼저 ‘공동체 대화’는 아카이브와 역사학 분야에서 형성되어 온 전문적 권위와 지식 생산 구조를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집합적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며, 아키비스트와 연구자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기록의 생성, 해석, 접근 과정에 내재된 권력 관계를 재검토하도록 한다. 이러한 대화는 아카이브를 다양한 주체들이 기록의 생성, 해석, 접근 방식을 공동으로 재구성하는 제도적 성찰의 장으로 재위치시킨다. Honey Pot Performance(HPP)와의 협업은 시카고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Black 페미니스트 퍼포먼스 집단과의 공동 작업을 통해, 하우스 음악을 중심으로 한 Black 문화 기억을 수행적 방식으로 탐구한다. 이 협업에서 퍼포먼스는 저작권, 소유, 접근의 문제를 포함한 아카이브 윤리를 재사유하는 실천적 방법으로 활용되며, 아카이브의 방법론을 확장시킨다.

마지막으로 ‘행동 지향적 요구’는 아카이브와 역사 보존 분야에서 지속되어 온 배제적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한 구체적 실천을 촉구하는 요소로서, 기록의 수집과 관리, 접근성 전반에 걸친 제도적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는 아카이브를 단순히 과거를 보존하는 공간이 아니라, 현재의 불평등을 교정하고 미래의 기록 방식을 재구성하기 위한 적극적인 실천의 장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를 반영한다. 이는 흑인 아카이브 실천을 단순한 포함이나 다양화의 문제로 보지 않는 최근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 흑인 아카이브 실천은 기존 아카이브에 흑인 삶의 서사를 추가하거나 아카이브 전문직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전통적 아카이브 실천의 원칙과 규범 자체를 문제화한다. 특히 돌봄, 거부, 노동, 가시성, 회복과 같은 개념은 아카이브가 무엇을 기록으로 인정하고, 누구의 지식과 노동을 보존하며, 어떤 관계 속에서 기록을 다루어야 하는지를 다시 묻게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Blackivists의 제도적 회복은 아카이브 권위와 지식 생산의 조건 자체를 재구성하려는 실천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와 같이 ‘Toward an Archival Reckoning’은 아카이브를 제도적 중립성이나 고정된 권위가 아닌 공유된 해석과 살아있는 경험에 기반한 관계적 공간으로 상상할 수 있는 여지를 연다. Farmer와 그의 협력자들은 아카이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추출적 성격을 비판하며, 아카이브 실천이 종종 배제와 노동의 지위집, 그리고 인식론적 피해를 강화해 왔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단순히 기억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서 윤리적 책임성, 관계적 돌봄, 그리고 적극적인 공동체 참여에 기반한 ‘복원적 아카이브로써 접근’을 요구한다(Farmer et al., 2022, 825-827). 이러한 점에서 Blackivists의 프로젝트는 기록행위의 조건과 권력관계를 비판적으로 재구성하며, 아카이브 실천을 윤리적

이고 정치적인 개입으로 전환하려는 실천을 보여준다.

3.2.3 디지털 윤리: 감시, 동의, 데이터 보호를 둘러싼 공동체 기반 대응

Blackivists의 디지털 윤리는 디지털 환경에서 기록이 생산·공유·보존되는 과정이 감시, 법적 처벌, 개인정보 노출, 소유권 이전과 같은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들에게 디지털 아카이빙은 기록되는 사람의 안전, 동의, 접근 조건, 그리고 자료의 향후 사용 방식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윤리적 실천으로 활용된다.

이는 ‘Five Tips’ 시리즈에서 구체화된다. 2020년, Blackivists는 Sixty Inches From Centre와 협력하여 시위와 저항의 맥락에서 생성된 디지털 기록을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작하였다(Blackivists, 2025b). 이 시리즈는 운동과 봉기를 기록하는 개인들뿐만 아니라, 개인 자료나 증언의 기증을 고려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 이는 특히 정치적으로 긴장된 환경에서 디지털 아카이빙에 내재된 위협에 윤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구와 지침을 제공한다.

첫 번째 지침인 Five Tips for Organizers, Protestors, and Anyone Documenting Movements에서는 디지털 플랫폼이 감시와 법적 처벌의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 가이드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노출을 제한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시하며, 모바일 기기 보안, 사전 동의 확보, 공공 플랫폼에서의 민감한 자료 공유 자제와 같은 접근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특히 소셜 미디어는 아카이브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게시된 콘텐츠가 추적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사진, 영상, 메시지와 같은 기록은 비밀번호로 보호된 저장소에 백업할 것을 권고한다. 또한 위치 정보와 생체 인증, 메타데이터, 암호화되지 않은 메시지 등 디지털 흔적이 개인과 공동체를 식별하거나 추적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며, 기록의 저장과 공유 과정에서 익명성, 동의, 보안 조치를 함께 고려할 것을 강조한다.

추가 권고 사항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촬영 전 동의를 확보하고, 얼굴이나 신체 식별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처리하며, 메타데이터를 제거하거나 익명성을 유지하는 방식이 강조된다. 이러한 지침은 모두 디지털 환경에서 발생하는 감시와 권력의 불균형에 대응하는 실천적 행위임을 보여준다.

두 번째 지침인 Five Tips for Donating Your Materials는 개인 아카이브를 기관에 기증하거나 공유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이러한 결정에 수반되는 윤리적 고려를 강조한다. 이 가이드의 핵심은 기억의 소유권이 기관이 아니라 개인에게 있다는 점이다. 무엇을 공유할지, 누구와 공유할지, 어떤 조건에서 공유할지에 대한 결정은 기증자에게 있어야 하며, 공동체의 정서적·문화적 맥락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료 기증이 단순한 제공 행위가 아니라 법적·윤리적 계약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기증자가 기관의 수집 정책과 운영 방식, 자료의 접근 범위, 개인정보 보호, 저작권과 이용 조건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함께 생산자, 자료 유형, 생성 시기, 보관 위치, 자료의 중요성 등 이른바 ‘five W’s’에 해당하는 맥락 정보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기록의 해석 가능성과 활용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제시한다. 이는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가 소유권과 이용 권한의 이전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록의 의미 또한 맥락 정보의 보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동시에 이 가이드는 모든 개인이 자신의 경험을 반드시 기록하거나 기증할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며, 트라우마나 감정적 부담이 수반될 수 있는 자료의 경우 기증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한다. 이러한 점에서 Five Tips는 공동체가 자신의 아카이브 윤리를 정의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윤리적 디지털 아카이빙의 선언적 실천으로 기능한다(Blackivists, 2025b).

Gold와 Klein(2019)이 주장하듯, 디지털 기술은 결코 중립적이지 않으며, 오히려 권력 구조의 재생산을 가능하게 한다. ‘Five Tips’ 시리즈는 이러한 비판적 시각과 맞닿아 있으며, 개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과 기억이 기록되는 조건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강조하는 디지털 자기 보호의 방식을 제시한다. 따라서 Blackivists의 디지털 아카이브 실천은 디지털 시스템에 내재된 위계에 대한 저항의 장으로 기능하며, 기억 주권과 윤리적 실천이 전면에서 드러나는 능동적인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의 비교 분석

4.1 SAHA와 Blackivists의 비교 분석

본 장에서는 앞 장의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SAHA와 Blackivists의 실천이 기억 주권, 제도적 회복, 디지털 윤리의 측면에서 어떻게 공통점과 차이를 보이는지 비교 검토한다. 이를 위해 두 사례의 실천 방식과 한계를 각 분석 관점에 따라 차례로 살펴본다.

첫 번째로, ‘기억 주권’의 차원에서, SAHA는 구술사 이니셔티브를 통해 공식 아카이브에서 침묵되어 온 흑인 남아프리카공화국인들의 증언을 공적 기록의 영역으로 위치시킨다. 이를 통해 개인의 증언은 집합적 기억의 형성에 기여하며, 역사적 재현에서 배제되어 온 목소리가 아카이브 안에서 새롭게 가시화된다. 반면 Blackivists는 *Diamond in the Back*과 같은 공동체 기반 프로젝트를 통해 기억의 소유권과 해석 권한을 제도적 권력으로부터 공동체로 되돌리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SAHA가 주변화된 기억을 공적 기록으로 복원하는 방식이라면, Blackivists는 공동체가 자신의 기록을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며 해석하는 조건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기억 주권을 실천한다.

둘째, ‘제도적 회복’의 측면에서, SAHA는 PAIA를 활용하여 공공 기록에 대한 정부의 통제에 이의를 제기하고, 기록 접근을 법적·공적 권리의 문제로 전환한다. 또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아카이브 자료를 학교, 학계, 지역사회 등 공공 담론의 장 안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아카이브의 사회적 기능을 확장한다. 이에 비해 Blackivists는 제도 내부의 법적 절차보다는 기존 아카이브와 역사학 분야의 전문 권위, 추출적 수집 관행, 배제적 기록 구조를 비판하고 대안적 실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도적 회복을 수행한다. *Toward an Archival Reckoning*은 아카이브를 고정된 제도적 권위가 아니라 윤리적 책임성, 관계적 돌봄, 공동체 참여에 기반한 실천의 장으로 재구성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윤리’의 측면에서 두 사례의 차이는 더욱 분명하다. SAHA의 디지털 실천은 디지털 아카이브, 온라인 전시, 교육 웹사이트 등을 통해 기록 접근성과 공공성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둔다. 따라서 SAHA의 디지털 윤리는 적극적인 디지털 저항이라기보다는 정보 접근권과 시민적 기억의 공공성을 확장하는 제한적 디지털 윤리의 성격을 갖는다. 반면 Blackivists는 *Five Tips* 시리즈를 통해 디지털 기록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시, 법적 처벌, 개인정보 노출, 메타데이터, 동의, 기증 조건 등의 문제를 직접 다룬다. 이 점에서 Blackivists의 디지털 윤리는 디지털 자기방어와 데이터 보호를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실천의 핵심 원리로 제시한다.

그러나 두 사례 모두 한계를 지닌다. SAHA의 경우 PAIA에 대한 의존은 국가의 법적 인프라 안에서 작동한다는 점에서 아카이브 거버넌스의 완전한 탈식민화를 제한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SAHA와 남아프리카공화국 중앙은행(SARB) 간의 법적 분쟁은 국가 법 체계 안에서 정보 접근권을 실현하려는 시도가 재정적·행정적 부담과 제도적 저항에 부딪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구술사와 교육 프로그램 역시 어떤 증언이 수집되고 어떤 서사가 공적 기억으로 인정되는가의 문제에서 새로운 선택과 배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갖는다. 더 나아가 SAHA의 수집과 큐레이션 결정이 NGO 전문가와 법률·기록관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은, 탈식민적 의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인식론적 위계를 재생산할 가능성을 남긴다.

Blackivists의 경우 공동체 주도의 윤리를 전면에 내세우지만, 누가 공동체를 대표하는지, 누구의 기억이 기록되고 배제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남는다. 특히 계급, 젠더, 연령, 경험의 차이가 공동체 내부에서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여전히 중요한 문제로 남는다. 또한 공식 제도 바깥에서 활동한다는 점은 자원, 인력, 보존 인프라의 지속 가능성 문제를 동반한다. 이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기여자와 이용자가 변화하더라도 미래 세대를 위해 핵심 기능을 지속할 수 있는 구조를 필요로 한다는 점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두 사례 모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지만, 디지털 기술은 접근과 참여를 민주화할 가능성을 제공하는 동시에 알고리즘 편향과 불평등한 기술 접근이라는 구조적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디지털 아카이브의 민주적 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술 접근에서 주변화된 이들이 디지털 도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학습과 지원 체계도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SAHA와 Blackivists는 모두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보여준다. SAHA는 제도적 아카이브 내부에서 법적 개입, 구술사, 교육, 디지털 접근을 통해 기록 권력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반면 Blackivists는 국가와 제도 바깥에서 공동체 기반 참여, 추출적 아카이브 비판, 디지털 자기방어를 통해 기억의 권위를 재구성한다.

이와같은 비교를 통해 두 사례는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드러낸다. SAHA는 제도적 아카이브 내부에서 법적 개입, 구술사, 교육, 디지털 접근을 통해 기록 권력의 재구성을 시도한다. 반면 Blackivists는 국가와 제도 바깥에서 공동체 기반 참여, 추출적 아카이브 비판, 디지털 자기방어를 통해 기억의 권위를 재구성한다. 따라서, 두 사례는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이 제도 내부의 회복 전략과 공동체 기반의 윤리적 실천이라는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4.2 한국 과거사 기록관리 맥락에서의 쟁점

앞선 분석은 한국의 과거사 기록관리에서도 기억의 소유와 해석 권한, 제도적 책임, 디지털 환경에서의 접근과 윤리 문제가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과거사 기록은 일제강점기 식민 피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시기 국가폭력 등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들 기록은 피해 경험의 공적 인정, 진실규명, 사회적 기억의 재구성과 관련된다. 따라서 한국 과거사 기록관리의 쟁점은 기록이 존재하는가의 문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누가 기록의 주체로 인정되는가’, ‘피해자의 경험이 어떤 방식으로 공적 기록 속에 위치하는가’, 그리고 ‘생산된 기록이 피해자와 시민에게 어떻게 접근되고 해석될 수 있는가’가 핵심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먼저, ‘기억 주권’의 관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 기록은 국가폭력 피해 경험이 공적 조사와 기록화 과정을 통해 제도적 기록으로 편입된 사례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경험이 조사 기록으로 수집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기억 주권이 충분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는 피해당사자가 기록화 과정에 참여하고, 기록에 접근하며, 자신의 경험이 사회적 기억 속에서 다시 해석될 수 있는 구조를 필요로 한다. 이러한 점에서 진실화해위원회 기록은 기억 주권이 단순한 기억의 보존이 아니라, 기억을 기록으로 만들고 해석하는 권한의 문제임을 보여준다. 일제강점기 식민 피해 기록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나타난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은 단순한 과거사 자료가 아니라, 피해자와 가해 구조, 진상규명과 해결운동이 함께 얽힌 인권기록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은 공문서 중심의 1차 자료만으로 충분히 설명될 수 없으며, 피해자 기록과 증언, 재판 기록, 시위와 시민운동 기록, 외교적 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까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식민지 피해의 기록화가 가해자나 국가기관이 남긴 문서에만 의존할 수 없으며, 피해자의 증언과 해결 운동의 기록 역시 역사적 기억을 구성하는 핵심 자료로 인정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제도적 회복’의 측면에서도 진실화해위원회 기록은 중요한 의미와 한계를 동시에 지닌다. 진실화해위원회 기록은 국가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피해 사실을 공적 기록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기록이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된 뒤 체계적인 정리와 활용, 피해자와 시민의 접근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록을 통한 회복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도적 회복은 조사 기록의 생산이나 이관에 그치지 않고, 과거사 기록이 피해 경험의 사회적 재맥락화와 역사적 책임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가능하게 할 때 보다 구체적 의미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 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일본군 ‘위안부’ 기록을 둘러싼 논의에서 지적되듯, 관련 자료는 여러 기관과 사업에 분산되어 있으며, 사업 종료 이후 자료가 어떻게 관리되고 접근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단순히 목록이나 이미지를 제공하는 디지털화가 아니라, 자료의

생산 맥락과 유통 관계, 피해자 증언과 운동 기록의 관계를 함께 보여주는 아카이브 구조이다. 이는 Blackivists 사례에서 나타나는 공동체 기반의 기록 윤리와도 연결된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접근성을 확대하는 장치이지만, 동시에 기록의 맥락을 훼손하지 않고 피해자의 권리와 사회적 의미를 함께 보존해야 하는 윤리적 실천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한국 과거사 기록관리의 쟁점은 SAHA와 Blackivists의 비교 분석과도 연결된다. SAHA가 정보 접근권과 인권 기록을 통해 제도적 기록 체계에 개입하는 방식은 진실화해위원회 기록이 제도적 회복의 기반이면서도 지속적인 접근과 활용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이해하는 데 참고가 된다. 반면 Blackivists가 공동체의 기록 생산과 보존 역량을 강화하고, 기록의 소유와 해석을 공동체의 권리 문제로 다루는 방식은 일본군 ‘위안부’ 기록이나 국가 폭력 피해 기록에서 피해자 증언과 운동 기록이 어떤 방식으로 공적 기억 안에 위치해야 하는지를 되새겨 보게 한다. 따라서 한국 과거사 기록관리의 맥락에서 기억 주권, 제도적 회복, 디지털 윤리는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된 쟁점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의 두 해외 사례 비교는 한국 과거사 기록관리에서도 기억의 주체, 제도적 책임, 디지털 접근 윤리가 서로 연결된 문제로 검토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5. 결론

본 연구는 SAHA와 Blackivists의 사례를 통해 탈식민적 아카이브 실천이 기록의 수집과 보존을 넘어 기억의 권한, 제도적 책임,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 문제를 재구성하는 과정임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아카이브가 중립적인 저장소가 아니라, 기억을 보존하고 정당화하거나 때로는 억압하는 권력 관계 속에서 구성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하게 한다. 이는 Terry Cook, Joan Schwartz, Eric Ketelaar가 강조한 탈식민 시대의 아카이브 재사유와도 연결된다. 이들은 아카이브가 중립적인 저장소가 아니라, 기억을 보존하고 정당화하거나 억압하는 데 동원될 수 있는 권력 관계로 구성된 공간임을 상기시킨다(Cook, 2001; Ketelaar, 2001; Schwartz & Cook, 2002).

아카이브의 탈식민화가 단순한 상징적 수준에 머무르지 않기 위해서는, 기록의 생산, 조직, 접근을 둘러싼 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신중하고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아카이브를 윤리적 성찰과 공동의 책임을 요구하는 공간으로 재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특히, 오랫동안 공식 서사에서 배제되어 온 기억을 기록하고 보호하는 과제는 오늘날 아카이브 실천의 핵심적인 책임으로 부상한다. 이러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은 단순히 도구나 방법을 개선하는 문제를 넘어, 아카이브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 이를 위해 기관들은 자신의 운영 방식을 성찰하고, 다양한 공동체를 보다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실천을 조정하며, 아키비스트들이 기록 뒤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를 이끄는 가치에 대해 보다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환은 아카이브가 정의, 포용, 그리고 기억의 재생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하기 위해 집합적인 헌신과 실질적인 지원을 필요로 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진실화해위원회와 같은 과거사 관련 위원회 활동, 일제강점기 식민 피해 기록의 조사와 정리 과정을 통해 국가폭력과 식민지 경험에 관한 기록이 수집·생산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기록 관리 방식은 피해 당사자의 경험과 해석을 충분히 반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기록의 접근과 활용 측면에서도 다양한 쟁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 기록은 피해 경험을 공적 기록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갖지만, 기록의 정리와 활용, 피해자와 시민의 접근, 그리고 기록의 사회적 재맥락화가 함께 이루어질 때 제도적 회복의 의미가 구체화될 수 있다. 또한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의 경우에도 공문서 중심의 1차 자료뿐 아니라 피해자 증언, 재판 기록, 시민운동과 외교적 대응 과정에서 생산된 기록을 함께 고려할 때 식민 피해의 기억을 보다 다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SAHA가 보여주는 정보접근권과 인권 기록 중심의 제도적 개입은 한국 과거사 기록관리에서

기록 접근과 제도적 책임을 함께 사유하게 한다. 한편 Blackivists의 공동체 기반 아카이브 실천은 피해자와 공동체가 기록의 대상에 머무르지 않고, 기록의 생산·관리·해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따라서 한국의 과거사 기록관리 역시 국가 중심의 기록 생산과 보존을 넘어, 피해당사자와 공동체의 참여, 기록 접근권의 확대, 디지털 환경에서의 윤리적 제공과 활용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 우지원, 이영학 (2011). 과거사 관련 위원회 기록정보콘텐츠 구축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1(1), 67-92.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1.067>
- 윤은하, 김유승 (2016). 노근리 사건의 사회적 기억과 기록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6(2), 57-79.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2.057>
- 이경래 (2015). 과거사 집단기억과 ‘아카이브 정의’: 진실화해위원회 아카이브의 동시대적 재구성. *기록학연구*, 46, 5-44.
<https://doi.org/10.20923/kjas.2015.46.005>
- Appadurai, A. (2003). Archive and aspiration. In J. Brouwer, A. Mulder, & S. Charlton eds. *Information is alive*, 14-25. Rotterdam: NAI Publishers.
- Bastian, J. A. (2003). *Owning memory: How a Caribbean community lost its archives and found its history*. Greenwood Press.
- Blackivists (2025a). Diamond in the back. The Blackivists. Available: <https://www.theblackivists.com/aboutditb>
- Blackivists (2025b). Five tips. The Blackivists. Available: <https://www.theblackivists.com/about-five-tips>
- Blackivists (2025c). Toward an archival reckoning. The Blackivists. Available: <https://www.theblackivists.com/toward-an-archival-reckoning>
- Carter, R. G. S. (2006). Of things said and unsaid: Power, archival silences, and power in silence. *Archivaria*, 61, 215-233.
- Caswell, M. (2014). Toward a survivor-centered approach to records documenting human rights abuse: lessons from community archives. *Archival Science*, 14(3-4), 307-322.
- Christen, K. A. (2012). Does information really want to be free? Indigenous knowledge systems and the question of opennes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munication*, 6, 2870-2893.
- Cook, T. (2001). Archival science and postmodernism: New formulations for old concepts. *Archival Science*, 1(1), 3-24.
- Derrida, J. (1996). *Archive fever: A Freudian impress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Farmer, A. D., Booth, S. D., Flores-Clemons, T. R., Glasco, E., Hearn, S. S., & Williams, S. (2022). Toward an archival reckoning. *The American Historical Review*, 127(2), 799-829. <https://doi.org/10.1093/ahr/rhac161>
- Gold, M. K. & Klein, L. F. (2019).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19*. America: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Harris, V. (2002). The archival sliver: Power, memory, and archives in South Africa. *Archival Science*, 2(1-2), 63-86.
<https://doi.org/10.1007/BF02435631>
- Hartman, S. (2008). Venus in two acts. *Small Axe*, 12(2), 1-14.
- Jethro, D. (2023). History uploaded: Digital archives after thirty years of democracy. *South African Historical Journal*, 75(3), 376-399. <https://doi.org/10.1080/02582473.2024.2351828>
- Ketelaar, E. (2001). Tacit narratives: The meanings of archives. *Archival Science*, 1(2), 131-141.
- Mbembe, A. (2002). The power of the archive and its limits. In C. Hamilton, V. Harris, J. Taylor, M. Pickover, G. Reid, & R. Saleh (Eds.), *Refiguring the archive* (pp. 19-27). Springer.
- Noble, S. U. (2019). Toward a critical Black digital humanities. In M. K. Gold & L. F. Klein eds. *Debates in the digital*

- humanities 2019.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Owens, T. (2018). *The theory and craft of digital preservation*.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 Promotion of Access to Information Act. Act No. 2 of 2000.
- Rassool, C. (2006). Community museums, memory politics, and social transformation in South Africa: Histories, possibilities, and limits. In Karp, I., Kratz, C. A., Szwaja, L., & Ybarra-Frausto, T. eds. *Museum frictions: Public cultures/global transformations*, 286-321. Durham: Duke University Press.
- Ricoeur, P. (2004). *Memory, history, forgetting*. Translated by K. Blamey & D. Pellauer.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wartz, J. M. & Cook, T. (2002). Archives, records, and power: The making of modern memory. *Archival Science*, 2(1-2), 1-19.
- Sherratt, T. (2019). Unremembering the forgotten. In Gold, M. K. & Klein, L. F. eds. *Debates in the digital humanities 2019*.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2009). AL3280: The Forgotten Voices of the Present Collection. SAHA online catalogue. Available: <https://www.saha.org.za/collection.php?id=528&s=al3280>
- 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2011). AL2933: The 1981 Detainees Oral History Project. SAHA online catalogue. Available: https://www.saha.org.za/collections/the_1981_detainees_oral_history_project_2.htm
- 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2025). Projects. Available: <https://www.saha.org.za/projects.htm>
- South African History Archive (n.d.). AL2460: The Julie Frederikse Collection. SAHA online catalogue. Available: <https://www.saha.org.za/collection.php?id=444&s=Julie+Frederikse>
- Stevens, M., Flinn, A., & Shepherd, E. (2010). New frameworks for community engagement in the archive sector: From handing over to handing 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6(1-2), 59-76. <https://doi.org/10.1080/13527250903441770>
- Stoler, A. L. (2009). *Along the archival grain: Epistemic anxieties and colonial common sens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unday Times Heritage Project (n.d.). A new home for history. Available: <https://sthp.saha.org.za/>
- Trouillot, M.-R. (1995). *Silencing the past: Power and the production of history*. Boston: Beacon Press.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Lee, Kyong Rae (2015). Past affairs-related collective memories and the archival justice: the contemporary rebuilding of the archive on the truth and reconciliation committee.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46, 5-44. <https://doi.org/10.20923/kjas.2015.46.005>
- Woo, Jee Won & Lee, YoungHak (2011). A study on establishing measurement of the record information contents in past history commiss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1(1), 67-92. <https://doi.org/10.14404/JKSARM.2011.11.1.067>
- Youn, Eun-ha & Kim, Youseung (2016). Understanding No Gun Ri record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memo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6(2), 57-79. <https://doi.org/10.14404/JKSARM.2016.16.2.057>